

# MEDICAL Observer

UPDATE : 2018.3.28 수 11:27

정책 병의원 제약산업 학술 학회 CME 연재 인터뷰 Search

보건복지 보험의약 법률고시 기획특집 취재파일 오피니언 포토뉴스 단신



홈 > 인터뷰

## "국가심뇌혈관질환 정책수립에 중요한 파트너 될 것"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회장 취임 백상홍 회장

박상준 기자 | sjpark@monews.co.kr



[1호] 승인 2018.03.27 06:19:02



### 많이 본 기사

- 1 최대집 당선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반드시 막겠
- 2 미세먼지 있는 날씨에 실내 환기는 해야 할까?
- 3 제40대 의협 회장 최대집 후보 당선... '강성' ...
- 4 당선증 받는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 5 관리만으로는 한계... "탈수용 초점 맞춰야"
- 6 신약개발 날개 달아줄 AI '뜨구름' 안 되려면?
- 7 "전문의 인건비 20%↑" 외상진료 개선대책 확정
- 8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궁금하다면?
- 9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 "비급여 급여화 막겠다"
- 10 신라젠, 벡시니아 바이러스 특허 추가 등록





▲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백상홍 회장.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KSCP) 회장에 가톨릭의대 백상홍 교수(서울성모병원 심장내과)가 취임했다.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는 지난 9년 전 신경과,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전문가 교수들이 주축이 돼 모여 만든 국내 첫 다학제 융합학회다.

CME AR EO CRU RC SH

조산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출산 전후 프로바이  
알레르기질환 치료의 최신 지견  
3제 고정복합제 세비카 HCT®의 특화된 안전성



지금까지 다양한 융합학회가 있지만 대부분 유사한 연관학회가 연결된 통합학회이고, 서로 다른 과가 뭉친 것은 사실상 이 학회가 처음이다.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증가와 맞물려 종합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가주도 심뇌혈관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다양한 자문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 백회장을 만나 학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 **Q. 학회명이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느낌이다. 어떻게 만들어 지게 됐나?**

지금까지 전문학회들이 특정 전문 분야에서만 학술활동을 해왔다면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는 이름에서 말해주듯 심장과 뇌 그리고 내분비계 등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학술단체다. 올해로 역사가 9년이 됐다. 융합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많이 일반화 됐지만 창립 당시만해도 융합학회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많았다. 하지만 질환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대합의에 따라 만들어지게 됐다. 현재 의학계에서도 융합은 큰 흐름이다. 서로 연관성 있는 많은 학술적 정보를 한자리에서 듣고 토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 **Q. 어떤 과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나?**

심장내과(또는 순환기내과), 신경과, 내분비내과, 역학, 영양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회 주요 구성원이다. 현재 환자 구성을 보면 대부분 복합질환을 갖고 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내분비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고지혈증,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이 고혈압을 비롯 심근경색, 심부전,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환자들은 또 뇌졸중, 일과성 허혈발작 등 신경과적 문제를 앓고 있거나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환자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병 원인을 추적하는 역학자들의 역할도 필요하고, 어떻게 영양을 섭취해야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지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은 5개 과가 주축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영역을 더 넓혀나갈 계획이다.

#### **Q. 융합학회의 필요성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 통합내과 추진과도 연관이 있는 것인가?**

내과라는 영역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 융합학회라도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주요 만성 질환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우리학회가 그 역할 중 일부를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병원들이 추구하는 통합내과는 고령화사회를 앞두고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 환자를 여러과로 돌리지 않고 한자리에서 토털케어를 하겠다는 의미다. 보는 시각에 따라 병원경영의 효율화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학술적 통합도 필요하다. 배경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의료진은 많은 의학적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 Q. 학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학회 본연의 학술적 정보 교류외에도 앞으로 국민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국가기반 심뇌혈관질환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자문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심장학회, 뇌졸중 및 신경과학회가 모 학회가 주도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세부 자문이 오면 적극적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차예방의 필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일차예방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이차예방도 해야한다. 이차예방 중 핵심은 재활이다. 대표적으로 뇌졸중 재활와 심장 재활이 있다. 심장재활의 경우 오랫동안 국가의 의료보험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이 이뤄지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심장 재활을 심혈관 재활 분야로 확대시키는 학회의 큰 목표이자 변화다.

#### Q. 예방학회로서 대국민 메시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미국에서 흥미로운 논문이 나왔다. 내용은 전세계 최강대국이 연방정부 예산을 건강에 투자하는데 왜 국민은 행복하지 않는가란 논문이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은 의료행위, 의료기계에 대한 투자가 많은 반면 독일 등 몇몇 보건선진국은 예방교육에 많이 투자한다는 차이가 있었다. 예방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논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심뇌혈관질환학회도 교육 필요성을 전달하는게 중요하다.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국민적 건강교육, 공공기관단체 교육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 Q. 올해 춘계 학술대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내용은 무엇인가?

올해 춘계학회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목표고혈압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했다. 당뇨병, 고지혈증, 뇌졸중 동반 환자의 적절한 혈압관리에 대해 임상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다. 국제 가이드라인 발표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개별화 맞춤형 치료 전략이다. 꼭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보다 어떤 환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실제 임상 경험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라서 유익했다는 평가다.

#### Q. 학회 발표 내용을 보면 국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느낌도 있다..

주요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을 때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대학제 융학학회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다. 나아가 국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임상 연구의 필요성도 꾸준히 강조할 것이다. 자체 자산을 활용해서 자국 가이드라인은 만들 수 있는 곳은 미국 밖에 없다. 대부분 이를 수용 개작한다.

그러나 갈수록 인종간 차이가 뚜렷해 지고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자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지금은 없지만 향후 10, 20년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그러나 보건정책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우선순위 설정을 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과 정책자와 협의가 필요한데 이런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 Q. 앞으로의 학술활동은 무엇이 있나?

내년이면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가 10주년이 된다. 10년을 맞아 국제학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회 부흥을 위해 그동안 친목으로 다져왔던 주요국 석학들을 초빙해 양질의 학회가 될 수 있도록 할 노력하겠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태그 [백상홍](#),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서울성모병원](#), [심장내과](#), [신경과](#), [뇌졸중](#), [내분비내과](#)

#### [관련기사]

##### 한국인 뇌졸중 골든타임은 10시간

▶ 박상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  
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MEDICAL Observer**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청소년보호정책](#) [신문윤리강령](#)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메디칼업저버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12(역삼동, 동아빌딩 7층) | 대표전화 : 02-3467-5400 | 팩스 : 02-3452-9229

등록번호 : 서울,아03527 | 등록일자 : 2000.10.10 | 발행·편집인 : 김관홍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홍

Copyright © 2014~2018 메디칼업저버.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C**